

### 하나님의 복음 : 로마서 강해 1:1-7

오늘 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자 바울” 이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1 절-7 절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 :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 :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노라



Apostle Paul & Agula making tent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앙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누구라고 믿으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살이에서 사도 바울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로 살면서 모진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때 핍박으로 인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앙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두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에게서 승리를 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승리를 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여, 자신으로 부터, 환경에 대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롬 1:1-2 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교리적 부분과,  
삶의 지침이 되는 윤리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 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인적 사항과 로마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반적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고,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일반적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I. 사도 바울의 일반적 인적 사항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 지파입니다.

다윗 왕에서 시작하여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12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남 왕국과 북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방 10 지파는 북 왕국에 속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지파는 남 왕국에 속했습니다.

북방 10 지파가 속해 있던 북 왕국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BC 722 년에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남 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타고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부모는 바울의 할례 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을 따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는 지금의 Turkey 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유복한 집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이며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보내져 예루살렘에서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있었을 것이며,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 유대교에 배치된다하여 기독교 박멸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반대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름을 받은 후 기독교 역사상 비길 사람이 없는 탁월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AD 57 년경이며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 2.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지고 있는 것은,  
사도 행전 2 장에서 성령강림이 120 문도에게 있을 때,  
천하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이유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주축이 아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로마서 1 : 5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또 6 절을 보면

로마서 1 :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 서신의 수신자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또 로마서 11 : 13 에서,

로마서 11 :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한 것을 보아도

로마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AD 42 년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20-25 년을 사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sup>1)</sup>.

이것은 로마 교황이 베드로에게서 수제자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를 맡은 유대적 기독교를 전한 사람입니다(갈라디아서 2 :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사람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수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하였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설립하지는 않았어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로마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6 장에서, 바울 사도가 26 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들이 로마에 모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세기에 유명한 교부인 이레나이우스는 이런 각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 I.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적 기원을 갖는 세가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 1. 하나님의 복음(롬 1:1)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2. 자신의 사도권(롬 1;1)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3. 하나님의 의 (롬 1:17)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1.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철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절대적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배운 것도 아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 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 영생에 대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생에 대한 복음이 바로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인간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계획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적 기원을 나타낼 때 관용구처럼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1. 영원전에 2. 창세전에 3. 태초에,

#### 1. 영원전에 있었던 약속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 :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 before the world began

### 1.1 영생의 약속에 대하여

디도서 1:2 에서

디도서 1 : 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영원전부터 신적 기원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천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 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 1.2 삼위일체 간의 약속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면, 아무도 없을 그 때에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 2 Timothy 1:9 (NKJV)

<sup>9</sup>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to us in Christ Jesus **before time began,**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은혜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전에 삼위일체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모든 선택된 자의 대표이신 만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요 5:26).

이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창세전의 이 약속에는 인간이 끼어들지 않아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믿는 자들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과, 적용에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에,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하시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 1.3 영원한 선택에 대하여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sup>2)</sup>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 :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포함되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분이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여러분과 나를 창조 전에 벌써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100 %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전 부터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며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